

##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는 길 (역대하 17:1-19)

마음열고/찬양과 나눔 - 매일성경 책에서

###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

1. 여호사밧이 그 조상 다윗같이 행함으로 그 나라가 견고해집니다.(1-5절)

1) 여호사밧은 어떤 길로 행함니까(3절)?

▶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는 통치초기에 선정을 했지만 말년에 북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 아람에게 조공을 바침으로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다. 이에 아사는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렸다. 그는 병이 들어 위독하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결국 비참히 죽었다(대하 16장).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말년을 반면교사로 삼았을 것이다. 여호사밧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지하며, 또한 이스라엘을 지키는 데 힘을 다했다(2절).

하나님께서서는 유다 왕들의 평가 기준으로 다윗을 세우셨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하셨는가?

-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

- ① 자신의 고난보다 하나님이 뜻을 더 우선했다.(삼상26:1-12)
- ② 자신의 왕권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우선했다.(삼하2:1)
- ③ 자신의 체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했다.(삼하12:13)
- ④ 자신의 공로보다 하나님의 은혜(주권)를 우선했다.(대상29:14)
- ⑤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복으로 삼았다.(시16:2)

- 물론 다윗도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법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왕상15:5) “이는 다윗이 헛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2) 여호사밧이 하지 않은 일은 무엇이고(3절), 또 한 일은 무엇입니까?(4절)?

▶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3절),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했다(4절).

-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긴 이유는 무엇인가?

나눔1)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길은 새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조상 다윗이 걸었던 ‘옛길’(렘18:15)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를 증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다시 걸어야 할 ‘옛길’은 무엇인지 서로 나눠봅시다.

교회 공동체가 따라야 하는 ‘옛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교회는 성경대로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특별히 사도행전 예루살렘 공동체를 본받아야 한다.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행2:45-46)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행4:29)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

(행6:4-6)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나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인수하니라”

## (참고사항)

### 2. 여호사밧이 유다 전역에 종교개혁을 시행합니다(6-9절).

#### 1) 여호사밧은 무엇을 제거합니까(6절)?

##### ▶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하였다.

이스라엘의 타락상은 전국 곳곳에 산재했던 '산당'으로 대변된다. 산당은 우상숭배를 위한 장소였다. 때문에 유다에 개혁적인 왕이 등장할 때마다 이 산당을 뿌리 뽑는 것이 과제가 되었다. 본문에는 여호사밧이 산당을 제거했다고 말하였으나, 열왕기상의 기록은 조금 다르다.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기록한다(왕상22~43). 이로 보건데, 여호사밧이 산당을 폐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모든 산당이 폐해지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산당은 뿌리 깊은 죄의 습관이었다.

#### 2) 여호사밧이 방백과 레위 사람과 제사장을 백성에게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9절)?

##### ▶ 그들이 율법책을 가지고 모든 유다 성읍에서 백성을 가르치도록 하기위해

단지 뭔가를 멈추고 없애는 것만으로 신앙적 삶이 회복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넣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빈 곳에 바른 것을 채워 넣지 않으면 더 악한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경고하셨다.(마 12:43-45). 여호사밧은 우상의 단을 제거하기 위해 힘쓰는 한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힘썼다.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파송된 이들 가운데는 레위 사람 뿐아니라 정치 지도자인 방백들도 있었다. 단지 율법을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시행되도록 힘썼음을 보여 준다.

나눔2) 신앙의 회복은 가장 먼저 내 안의 우상을 제거하는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결코 확실한 해결책이 아니다.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은 그 자체로는 어떤 힘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거룩함이야말로 전쟁도 이기는 능력이요, 힘이다.

### 3.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점점 더 강하게 하십니다(10-19절).

#### 1) 하나님은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를 어떻게 하십니까(10, 11 절)?

##### ▶ 그 나라들에 두려움을 주셔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고, 조공을 바치게 하셨다.

여호사밧은 단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본분을 다했을 뿐이지만, 뜻밖에도 그것이 전쟁을 억제하는 능력이 되었다. 그의 아버지 아사가 북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 아람에게 조공을 바친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군대와 정치 외교적 수단은 가시적이고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결코 확실한 해결책이 아니다.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은 그 자체로는 어떤 힘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거룩함이야말로 전쟁도 이기는 능력이요, 힘이다.

#### 2) 여호사밧은 점점 더 강성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12,13절)?

##### ▶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며, 예루살렘에 크게 웅장스러운 군사를 두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말이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요, 종으로서 해야 할 본분을 다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힘을 주심으로 여호사밧은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웅장스러운 군사를 기를 수 있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다. 은혜는 강한 군대를 세운다 그렇다고 강한 군대가 은혜를 대신하지는 못한다.

나눔3) 공동체의 능력은 내부 갱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허물을 덮어두고는 결코 세상을 향한 하나님 백성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우리 교회가 실천할 일은 무엇일지 생 각해봅시다.

마음 모아, 함께 기도